

예방의학의 역사적 전개

유승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 머리말

대한예방의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이제 그 역사적 흐름을 더듬어 보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예방의학계의 원로도 아니며 의사학자도 아니다. 그저 관련 자료를 읽었거나, 원로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였거나, 조교 때부터 꾸준하게 학회 일에 관여되었거나, 궁상스럽게 이것저것 모아두었거나, 어쩌다가 역사를 쓰는 일에 깊이 관여하였는 등 역사에 대하여 남보다 관심과 흥미가 있었을 뿐이다.

예방의학회의 시작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미 1970년대 중반에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광복 후 기록이 미비하므로 당시 관여하였던 선배들의 의견에 따라 1947년 조선보건학회의 창립을 그 출발로 보고 대한위생학회를 거쳐 대한예방의학회로 발전되었음을 수용하였다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약사. 1979).

비록 예방의학회는 없었으나 (서양)의학의 도입 이후 예방의학과 관련되는 활동을 살펴보고, 지난 50년을 가슴으로 일한 1945-61년, 땀으로 일한 1962-71년, 발로 뛴 1972-83년, 머리로 일한 1984-92년, 그리고 온 몸과 마음으로 일하는 1993-현재로 나누어 더듬어보기로 한다.

무릇 역사에는 양면성이 있고 또 전체를 보는 것이 쉽지가 않으므로 매우 조심스럽다. 원로들께 다시 여쭙고 문헌과 자료를 되지는 등 최선을 다 하기는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을 줄 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면 다시 자료를 찾아 재정리하고자 한다.

2. (서양)의학 도입 이후 광복까지의 예방의학 관련활동 (1885-1945)

이 시기는 선교사들에 의한 미국식 의학과 일본인에 의한 독일식 의학으로 대별된다. 후자는 경성제국대학과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전자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로 흐름을 정리할 수 있겠다.

가. (서양)의학의 도입과 선교사들의 예방의학 활동

(서양)의학이 1885년 미국선교사 Horace N. Allen에 의하여 한국에 도입되었는데 그는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으로 자원하여 1884년 9월 20일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한국에 온 지 두달여 만에 갑신정변(1884. 12. 4.)이 일어났는데 그 때 자상을 입은 민영익 등을 치료하여 고종황제의 고임을 받게 된 Allen이 다음과 같이 병원설립을 제안하였다(1885. 1. 22.).

“(전략) 만약에 귀 정부에서 본인에게 시설만 제공하여 준다면 환자와 부상 병들은 서양의술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젊은이들에게 서양의학과 위생학을 교육할 수 있는 방도도 될 것입니다. (중략)”
(Foreign Missionary Volume XILV No.2, July 1885)

Allen이 병원설립을 제안하면서 의학교육과 위생학교육을 할 것임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그가 작성한 제중원 초년도 보고서 (1886)는 우리나라 질병분류에 대한 최고(最古)의 문헌가치가 있다 (보고서 21페 이지).

한편 내무아문(현재 내무부에 해당)에서 1895년 7-8월에 최초의 콜레라 방역

책임자로 Oliver R. Avison교장을 임명하였는데 그는 선교사들과 함께 전단을 인쇄 배포하여 콜레라에 대한 지식과 예방법을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소금물요법을 시행하였는 바 국내에서 수액요법의 효시이며, 보건교육의 첫 실시라고 할 수 있겠다. 제중원의학부는 1895년에 위생학 교과서를 번역 출판하였다 (1895).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미친개에 물린 것을 계기로 나가사끼의학교에 가서 광견병백신 제조방법을 전수(1904)하여 일본정부가 백신연구소를 개소할 때까지 무료로 제공하였다.

R. G. Mills, J. D. Van Burkirk, A. I. Ludlow 등이 제중원의학교에 연구부를 설치(1914)하였는데 그 목적이 매우 흥미있다 (의학백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86).

목적 :

- 1) 식이와 습관을 달리 하고 있는 한국 고유의 의료문제 연구
- 2) 가정위생과 보건상 문제의 조사
- 3) 한국 고유음식과 그 영양가에 관한 연구
- 4) 일반 국민의 섭식상태를 조사하고 일상생활에 충분한 섭식량을 결정하는 연구
- 5) 수백년 동안 사용하여 온 재래약물의 효과에 관한 연구
- 6) 재래약초와 동물을 매개로 하는 기생충을 연구하기 위한 식물학적 및 동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목적 :

- 1) 국민생활과 보건의 향상
- 2) 기숙사생활 학생의 영양을 향상시켜 결핵이환으로부터 보호
- 3) 정상적 생리조건을 규정하여 개업의들에게 병적상태 판단에 대한 기준의 확립

당면연구과제 :

- 1) 각종 재래약물과 약용식물에 대한 수집과 분류
- 2) 한약국방과 침술 및 뜸질에 관한 서적의 번역
- 3) 한국 영아사망률이 높은 원인에 관한 통계학적 연구

- 4) 대소변, 혈액 및 객담검사 성적의 분석
- 5) 한국인 매독감염빈도에 대한 조사
- 6) 기숙사학생 섭식량의 조사와 영양가 측정
- 7) 일본의학논문의 영역

나. 경성제국대학과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위생학교실 창설

위생학강좌는 있었으나 위생학교실은 없었다. 1927년 경성제국대학의 학부에 위생학교실이 창설되었는데 경의전 세균학 조교수인 고도히끼(綿引朝光)를 책임자로 하였고 이어 내과의 미지마(水島治夫) 조교수를 임명하여 교실을 정비하였다. 미지마는 1930년 Rockefeller재단 장학생으로 Johns Hopkins 보건대학원에서 공부하고 1932년에 귀국하였고 2년 뒤에 교실책임자가 되어 본격적인 교실활동을 시작되었다. 그가 1940년 구주제국대학으로 전임할 때까지 교실의 황금시대였는데 생체계측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보건, 생명표작성에 의한 생정통계, 풍토병 등의 역학 등을 다루었다 (예방의학교실사. 서울의대예방의학교실, 1993).

한편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1916년에 졸업한 김창세가 1920년 도미하여 한국인 최초로 Johns Hopkins에서 보건학박사를 받고 1925년에 귀국하였다 (동아일보 1925년 10월 19일). 그의 논문제목은 Some chemical and biological studies of the mung bean, Phaseolus Aureus Roxburgh 이다. 귀국과 동시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조교수로 취임하여 세균학교실에서 맡았던 위생학강좌를 독자적으로 개설하고 위생학교실(Dept of Public Health)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O.R. Avison교장의 아들인 소아과교수 Douglas B. Avison이 Toronto대학교에서 보건학박사를 받고 1927년에 귀국하였다. 위의 두사람과 독립운동을 도운 F.W. Schofield(V.D.S.) 등 세사람의 교수가 위생학교실의 주축이었다. 세브란스 교직원과 학생 및 기타 관계자들이 한국 최초의 항결핵회를 결성(1928. 10. 26.)한 것은 예방의학의 사회참여 표현이라 하겠다.

다. 개정농촌위생연구소의 개원

한국의 예방의학을 거론할 때 개정농촌위생연구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대학이 아니면서 예방의학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이영춘강사(1929년 졸업)가 일본인 농장주 구마모도(熊本利平)의 초청으로 소작농민과 가족 2만명에 대하여 개정 부근의 농장에 무료순회진료와 보건사업을 1935년에 시작하였다. 이영춘(1903 - 80)소장의 건의로 농장주가 무료학교급식을 하였고, 당시 문제가 되던 여러가지 보건문제에 대한 연구와 지역사회보건사업을 하였다 (부록 1. 농촌위생연구소 요람. 4286년 12월). 1942년에 개정에 부임한 김경식선생은 아직까지 일하시고 계시다. 농촌위생 잡지(The Journal of Rural Health)를 1951년에 창간하여 1953년에 2호, 그리고 1970년에 3호가 발간되었다. 수준높은 논문들이 실려있어 당시의 보건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참고로 제1권의 목차를 살펴본다.

제1권 목차

제1권 (1951.12)

(조사연구)

1. 농촌결핵에 관한연구 (제1보). 전북 옥구군 옥산면민의 결핵감염도 조사 윤석우, 서정주
2. 농촌매독에 관한연구 (제1보). 농촌학동의 선천성매독조사 ... 김경식, 윤석우, 이세연, 최승조
3. 농촌기생충에 관한 연구(제1보). 만경강 급 동진강 유역주민의 간지스토마 감염 분포조사 ... 김성환, 윤석우, 김태연, 박종무, 이한규
4. 침적 내에서의 십이지장충란 급 자충의 운명에 관한 연구 ... 소진탁
5. 요피로반응에 관한 연구 ... 심봉섭
6. 농촌아동연령의 호적과 설계와의 차이에 관한 소고찰 ... 윤석우

(임상실험)

1. 기생충의 외과적 의의
2. 고도협골반의 자연분만 예
3. 회장 말단염의 5예

(소개)

미국농촌위생위원회 급 제6회 전국농촌위생회의

(영문초록)

라. 한국위생학의 원조 심상황선생(1909-72)

한국 예방의학의 원조가 심상황선생이라는데 부인할 사람은 없다. 심선생은 1935년에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경도제국대학 의학부 위생학교실에서 박사학위를 하였는데 의복과 주택위생에 관심이 많았다. 후덕하신 심선생은 한국의 예방의학계를 끌어온 제자들을 두었다. 최희영선생과 함께 조선보건학회, 조선위생학회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예방의학회가 창립된 후 8년간 회장을 역임하였다. 아깝게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재직시 타계하였다 (심상황교수 추모논집. 1977. 3).

마. 위생학 관련 출판

예방의학과 관련되는 서적은 다음과 같다.

제중원의학부. 위생학. 1895 (번역 교과서)

중앙위생협회. 위생대감. 1912

통속가정위생학. 登美屋서점. 1924

白石保成. 조성위생요의. 1918

延年益壽. Selmon. Health and Longevity. 1920 (역서)

반복기, 김명선. 건강생활. 조선야소교서회. 1938

조지 에취 류. 위생과 치료. 시조사. 1938

3. 광복후 위생학교실 시절(1945-61) : 가슴으로 일한 시기

가. 조선보건학회의 창립(1947.5.10)

위생학을 하시던 분들이 광복을 맞아 최희영, 심상황선생을 대표로 한 조선보건학회를 창립하였다. 학회 창립 50주년은 이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1948년에 총회를 열고 회장에 최희영, 부회장에 최제창선생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6.25로 일시 활동이 중단되었다.

1953년에 부산에서 학회재건총회를 개최하고 명칭을 위생학회로 개칭하였으며 심상황선생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1961년까지 심선생이 회장을 맡아 학회를 육성하였다. 1958년에는 학회명칭을 대한예방의학회로 개칭하였다 (대한의학협회·분과학회협의회 약사. 1979).

나. 보건학 석사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활동

광복과 더불어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곧 10명을 선발하여 1945년에 미국 보건대학원에 보냈다. 하바드에 송형래, 미쉬간에 최창순, 한범석, 김동철, 주인호, 존스 흉킨스에 최제창, 윤유선, 백행인 등이었다. 1947년에는 다시 이병학, 이상원, 최영태 등을 유학보냈다. 그 후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대학 등에서 한국의 보건정책과 예방의학분야 발전에 기여하였다.

계속하여 1952년에 구연철은 WHO 정책에 따라 필리핀대학에, 이종진은 존스 흉킨스에, 그리고 1954년에 방숙, 차윤근 등은 존스 흉킨스로, 양재모는 미쉬간으로, 김명호는 미네소타에서 보건학석사를 하였고 그 외에 박승규, 차몽호,

윤석우 등도 미국에서 학위를 마쳤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미네소타플랜으로 1959 - 61년에 박형종, 고응린, 권이혁 등이 미네소타에 갔고, 허정은 미쉬간에 다녀왔다. 이들은 선진국 개념의 보건학을 배워 한국에 심으려 하였으나 전쟁 후 경제 사회 여건이 워낙 열악하였으므로 가슴으로 뛰어 일하였다.

1955년에 서울 회현동에 한미재단의 후원으로 6개월 훈련하는 공중위생원을 설립하였는데 한범석원장, 구연철부원장, 그리고 김명호강사로 운영하였다. 윤석우, 차몽호, 김경식 등이 첫 수료생이었다. 이를 모체로하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1959년에 설립되었다.

1957년에 고양군 시범보건소를 만들었고 김명호소장이 취임하여 연세의대학생들이 예방의학 현지실습을 하였다. 같은 해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학교보건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다. 위생학 교과서 집필

구연철, 권이혁, 김명호, 방숙, 송형래, 심상황, 양재모, 조규상, 주인호선생 등 9명이 위생학교과서를 집필하여 653페이지에 달하는 상권이 1957년에 발행되었다. 아쉬운 것은 하권이 발행되지 못한 것이다.

이 때 예방의학 로고를 양재모선생이 도안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예방의학회에서 사용되고 있다.

라. 위생학도의 사회 참여

환자 개개인보다는 인구에 관심이 많은 위생학도인자라 사회참여에도 적극적이었다. 신탁통치 반대운동에는 양재모, 홍석기, 윤석우선생 등이 적극 참여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출감하였으며 양재모선생은 한글보급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백행인, 윤유선, 방숙, 구연철선생 등은 6.25전후하여 공무원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권이혁선생은 미9군단 민사처병원장을 하였다.

마. 대한공중보건협회 창립

1957년에 공중보건협회를 창립하였으나 활동은 미미하였다. 그 후 1975년에 대한보건협회가 창립되었다.

바. 소중한 자료

흔한 속에서도 귀중한 자료를 생산하고 보관한 것이 있어 소개한다. 군정청 차장(현재 보건복지부 차관에 해당)을 역임한 최제창선생이 Public Health in Korea by C.C. Choi, M.D., M.P.H. (1945-49)를, 주인호선생이 Public Health Reports in Korea by In Ho Chu, M.D., M.P.H. for United Nations Health Staff (1951)를 영문으로 써서 남기셨는바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유승 흄. 광복후 의학의 발전상 :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의사협회지 1997; 40(8): 968-971)

4. 예방의학의 정착을 위하여 뛴 시절(1962-71) : 땀으로 일한 시기

가. 예방의학 전문의제도 시작

심상황선생이 8년간 학회장을 맡아 하시다가 1962년에 주인호선생에게 넘기고 이때부터 8개 의과대학 중 서울 소재 5개 의과대학이 가나다 순으로 돌아가며 학회업무를 1년씩 맡게 되었다. 다만 고려대는 주인호선생 혼자라서 1968년에 회장을 다시 한번 맡았다.

1952년 한국에 전문의제도가 생겼으나 예방의학은 1963년에 전문의제도가 채택되었다. 전문의 1호는 윤유선, 2호는 김인달, 3호는 송인현선생이다. 이 시

기예 전임전공의는 거의 없었고, 대학 및 연구소 근무자, 개원의사, 장기군의관, 보건소장 등이 경력 인정을 받아 시험을 쳐서 전문의가 되었다.

나. 보건학석사 유학생

1960년대에는 WHO, China Medical Board, 미 인구협회 등의 지원으로 모자보건분야를 위한지원이 많아 산부인과(홍성봉, 송상환, 김연채, 이상근 등)와 소아과(박종무, 윤덕진 등)교수, 그리고 예방의학도들이 미국에서 보건학석사를 하고 왔다. 김정순선생이 존스 흉킨스에서 1967년에, 방숙선생이 1969년에 미쉬간에서 보건학박사를 하고 귀국하였으며, 김일순선생이 존스 흉킨스에서, 윤덕로 선생이 피츠버그에서 석사를 마치고 1968년에 각각 귀국하였다.

다. 제1차 5개년계획과 보건사업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62-66) 전후하여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창시에 관한 건의(양재모, 1961.5)를 하였고 의료보험 시범사업에 관한 첫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단기 4294년도 추가경정예산 건강보험대책 사업계획 설명서. 보건사회부 의정국 의무과)

이 때 국가사업으로 가족계획이 채택되어 연구와 현지사업을 위한 외국원조 연구비가 계속 지원되었다. 한국의 가족계획은 세계적 성공사례가 되었고 이런 업적을 바탕으로 양재모, 권이혁선생이 세계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은 사회학자와 통계학자를 참여시켜 예방의학의 사회조사방법론을 발전시켰고, 국내 사회학과 통계학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사회학에 이만갑, 한상태, 김주숙, 안계춘 등, 통계학에 최지훈, 이동우, 한성현선생 등이 가족계획에 적극 참여한 비의사학자이다. 대규모 외원은 당시 외환사정이 열악하였던 터라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였다. 가족계획 자금으로 IBM sorter 등도 도입되었고 가족계획연구원에 KIST의 컴퓨터 터미널을 설치하므로 보건학분야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쉬간대학교에서 인구통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지훈선생이 귀국시 SPSS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가지고 와서 보급됨에 따라 한성현선생 등이 제일 먼저 사용자가 되었고 필자도 1975년에 이를 사용해서 컴퓨터로 분석한 예방의학분야 첫 학위논문을 만들었음은 가족계획 덕이었다.

한편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권숙표선생은 지금까지의 환경위생개념에서 탈피하여 산업화에 따른 각종 오염에 관심을 돌려 1967년부터 공해분야에 집중하므로서 공해 연구의 원조 및 전문가로서 독보적 존재가 되었다.

라. 예방의학학회지 발간

1968년부터 예방의학학회지를 발간하였다. 1985년까지는 연1회 발간하였는데, 1986-88년에는 연 2회로, 그리고 1989년부터는 연4회로 늘렸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논문사독을 거쳐 게재 여부를 확정하므로서 질적 향상을 꾀하였고, 학회장 임기에 무관하게 편집위원장의 임기를 장기화하여 학회지 편집에 일관성을 부여하였다.

학회지에 게재신청논문 편수가 빈약하다가 1980년대에 증가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전공의가 급격하게 늘어난 점이다. 학회지 발간이후 현재까지 예방의학회지에 많이 게재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는 이정애선생이 학회지 데이터베이스작업을 하였기에 쉽게 작성할 수 있었으므로 감사드린다.)

표 1. 예방의학회지 논문 다수 기고자, 1968-1997

순위	성명	총 논문편수	1저자	2저자	3저자	4저자	5저자	6저자이상
1	김두희	48	13	20	5	5	1	4
2	유승흠	34	22	8	1	1	2	
3	박정한	28	15	11		1	1	
4	이채언	24	3	2	2	5	3	9
5	노재훈	23	4	9	4	3	3	
6	문영한	23		5	9	3	2	4
7	김한중	22	9	6	6		1	
8	임현술	19	11	4	2	1	1	
9	문옥륜	19	3	6	4	6		
10	김준연	17	5	4	1	1	1	5

마. 예방의학 활동

이 시기에 8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등 9개 기관이 주축이었다 (표 2). 그러나 당시의 경제사정이 위낙 나빴으므로 연구시설이나 연구비가 거의 없었기에 그저 열심히 일하는 수 밖에 없었다.

예방의학 인력도 매우 부족하였다. 4-5명 이상의 교수직을 확보한 의과대학은 가톨릭, 서울, 연세 정도였고, 나머지 학교는 한두명의 교수가 교실을 지키는 수준이었다. 1970년에 전국의 예방의학 교수직 수는 36명, 조교(전공의) 수는 7명이었다 (표 3). 1970년 학회가 끝나고 충무로 진고개불고기집에서 30여 전 회원이 모여 회식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표 2. 예방의학회원의 근무처

		1970		1986	
		전문의	비전문의	전문의	비전문의
대 학	교수직	45	5	85	30
	조교·연구직 등	12	10	7	25
보건직	보건사회부	19	4	4	1
공무원	시·도	6	5	2	1
	보건소	27	9	14	24
군		36	17	16	1
개 업		19	13	77	16
병 원		13	6	45	15
연구소·사립기관 등		9	1	22	10
외 국		23	5	11	4
미 상		13	13	13	5
계		222	88	296	132

주 1. 대한예방의학회 회원명부(1970년과 1986년도 예방의학회지 계재) 현직란을 분류한 것임.

2. 비전문의 회원중에는 비의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3. 교수직에는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보건대학원 외에 보건전문대학과 기초 및 임상의학교실들도 포함되어 있음.
4. 군에는 단기복무자도 포함되어 있음.
5. 병원근무 의무직 공무원은 병원에 포함시켰음.
6. 외국체재 전문의 1970년에 말레이지아 7, 월남 4, 미국 3, WHO 5, 그외 4이며 1986년도에는 미국 6, WHO 1, 그외 4임.

(자료: 유승호,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과정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예방의학회지 1989; 22(4): 424.)

표 3. 예방의학 교수 및 조교

1970년 1학기 현재

학 교	교수 / 조교
가 톨 릭	조규상, 정규철, 이태준, 이승한, 윤임중, 정치경 / 맹광호, 장임원
경 북	이성관, 김두희
고 려	주인호, 박용재, 빈순덕
부 산	김돈균 / 김준연
서 을	심상황, 권이혁, 차철환, 윤덕노 / 신영수
연 세	양재모, 방숙, 김명호, 권숙표, 윤명조, 김일순, 이동우 / 유승흠, 김기순
이 화	백행인, 구현철, 강지용
전 남	송인현, 김병우
서울보대원	김인달, 박형종, 고응린, 허정, 김정순, 김정근, 김태룡, 노인규 / 홍재웅
계	교수직 36명, 조교 6명+1명

자료 : 유승흠, 예방의학 보건관리분야 교육현황, 1986 대한예방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연제집, p.81)

가톨릭의대는 산업보건 중심으로 개척하였고, 연세의대는 가족계획과 공해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서울의대는 도시형 가족계획사업과 일산화탄소 연구를 중심으로 한 환경보건에 역점을 두었다. 다른 대학은 전염병관리를 포함 예방의학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5. 예방의학의 열정기 (1972-83) : 발로 뛴 시기

가. 지역사회의학의 대두와 지역사회의학 교육과정 포함

의료선교사 John R. Sibley가 Kit G. Johnson과 함께 거제지역사회보건사업(1969-77)을 시작하면서 한국에 지역사회의학 사업이 본격화하였다 (부록 2. 거제지역사회보건원 사업보고서. 1970.12) 이들이 지역사회의학의 개념 소개와 일차보건의료의 확산을 위하여 여러모로 기여한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몇가지만 들어본다.

첫째, 지역사회의학의 소개를 위하여 1차로 김명호, 구연철, 임의선(세브란스 병원장), 채웅석(내과과장) 등 4명, 2차로 이성관선생 등 4명을 선교부 재정지원으로 필리핀, 태국등 동남아 지역사회의학사업 시찰을 주선하였다.

둘째, 의과대학교육협의회 제2회 의학교육세미나의 주제를 지역사회의학교육으로 하도록 건의하고 필리핀의 Solon을 초청하는 등 재정지원을 하였다.

셋째, 1968년 Rockefeller재단 후원으로 이탈리아에서 세계 의료계지도자들이 모여 토의한 보고서 (Lathem, Newberry (eds). Community medicine : education, research and health care)를 김일순 선생을 중심으로 번역 출간하였다.

넷째, 거제와 지역적으로 가까운 부산의대에 거제지역사회의학사업을 승계시키려 시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각 의과대학에서는 의과대학 정규 교과과정에 지역사회의학 강의와 실습을 포함하게 되었고, 대학들과 예수병원 등에서 지역사회보건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마침 이 즈음에 권이혁, 양재모, 구연철 선생 등이 의과대학 학장을 맡게 되어 지역사회의학이 예방의학 교육에 보다 손쉽게 확산될 수 있었다.

다만 지역사회의학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운영의 주도권을 한국인에게 넘겨 준 Sibley선생의 신념이 꽂피지 못하고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나. 예방의학 전공의과정 정규화

전공의 수련의 틀이 잡혀있지 않다가 1973년 전문의수련규정에 예방의학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고 예방의학수련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문의로서 인턴과정의 이수가 필수로 되었다. 전공의 전임근무제는 대학조교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정착하였으며, 불충분한 전문의 배출과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았다.

다. 산업보건의 열기 확산

급격한 공업화에 따라 산업재해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가톨릭의대의 단독 무대였던 산업보건분야에 차철환선생이 1973년에 고려대로 가면서, 문영한장군이 전역하고 1974년부터 연세대에서 산업보건에 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에 앞서 부산 김돈균, 경북 김두희, 전남 김병우 선생 등도 그려 하였다. 신설의대에서는 학교마다 산업보건 위주로 교실을 운영하였다.

라. 제4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창설

USAID 철수에 즈음하여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이 창설되었으며,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대형 연구가 시작되었다. 한편 제4차5개년계획(1977~81)을 준비하면서부터 한국개발원의 보건경제팀과 같이 보건기획을 본격 도입하였다.

마. 전국민의료보험의 출범과 보건관리분야 연구 활성화

전국민의료보험의 시작과 함께 의료체계, 의료보험, 병원관리 등 보건관리분야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하였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1977년에 개원하였고 보건관리를 강조하여 학교 영문이름을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로 하였다. 아울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국내 처음으로 학부의 보건과학대학을 개교하였다.

바. 예방의학 학습목표 제정

분과학회에서는 처음으로 예방의학 학습목표를 제정하였고 시대변천에 따라 1981년, 1987년, 1994년 세차례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현재 4차개정 중이다.

사. 교과서 집필과 보건백서 출간

예방의학교실 대표자모임을 결성하여 46명의 교수들이 적극 참여 분담집필하여 1983부터 85년까지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1995년에는 개정판을 출판하였다.

한편 고 윤덕선 선생이 하시던 서울보건연구회에서 예방의학 교수들을 중심으로하여 1981년에 보건백서를 발간하였다.

아. 학회 운영

서울 소재 5개 의과대학에서 가나다 순으로 돌아가며 회무를 맡아오다가 1975년에 경북(이성관), 1977년에 전남(송인현), 그리고 1981년에 부산(김돈균)에서 학회를 맡아 순조롭게 진행하므로서 지방시대가 열렸다. 학회 장소로 풍전호텔(1970), 춘천세종(1974), 대구금호(1975), 부산극동(1981) 호텔 등 이외에는 학교 또는 공공기관을 이용하였는데,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서는 주로 호텔에서 하게 되었다.

6. 예방의학의 확충기 (1984-92) : 머리로 일한 시기

가. 학회 운영의 효율화

의과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교수 수가 늘어나고 전공의 수도 늘어 나게 되어 학회가 양적으로 팽창하였다. 회무도 급증하였다. 그동안 학회장의 임기가 1년이어서 회무의 지속성이 없어 1984년부터 학회장 임기를 2년으로 늘렸다.

나. 예방의학 전문의 능력에 대한 비판

예방의학전문의가 양적으로 팽창하는데 즈음하여 질적 수준은 구태의연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비전임전공의에 대한 비판과 전문의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대학의 본래 사명에 적합하지 않은 일상 교실활동 또는 업무에 대하여 소장총에서 비판적 시각이 표출되었다. 아울러 예방의학전문의에 대한 특수기능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연수교육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 회원의 증가와 분야별 발전

예방의학회 회원이 증가되고 학문이 분화됨에 따라서 학회에 3, 4백명이 참석하게 되므로서 분야별로 논제를 발표하기 시작하여 4-5개 분과로 나뉘어 발표토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수평적/분야간 대화와 토의가 격감하였다.

아울러 분야별 학회가 별도로 설립되었다. 역학회가 1979년에, 보건행정학회와 산업의학회가 각각 1988년에 창립되었다. 항공우주의학회, 농촌의학회, 모자보

건학회 등도 출범하였다. 이 학회들의 회장과 회무의 중심은 예방의학회원이다.

라. 유학 양상의 변화와 이론 연구 치중 추세

과거에 보건학석사 위주로 해외유학을 하였는데 1970년대 말부터는 보건학 박사와 post-doctoral fellow 위주로 바뀌었다. 신영수(1978), 한달선(1981), 유승 흄(1981) 등이 보건학박사를 마쳤으며, 미국에서 예방의학전문의와 보건학박사를 마친 박정한이 1981년에 귀국하였다. 그리고 많은 교수요원들이 1-2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지역사회의학의 보편화로 현지사업을 강조하던 1970년대가 지나가고, 각종 연구비가 늘어나며, 미국에서 공부한 교수요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현지 보건사업 연구보다는 방법론을 중시하는 이론연구에 기우는 추세였다.

이에 보건소장 등 현지 근무 회원들의 관심이 감소하여 자연히 참여가 둔화 되었다.

7. 예방의학회의 분야별 발전기 (1993-현재) : 온 몸과 마음으로 일하는 시기

가. 이사장제도의 도입

회원이 늘고 학회 회무가 많아지며 장기간 학회 활동을 해오는 회원이 급증 함에 따라서 1993년에 2년 임기의 이사장제도를 채택하였다. 예방의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연혁과 역대 회장과 이사장은 표 4와 같다.

나. 산업의학전문의제도 도입

예방의학과는 별도로 산업의학 전문의가 1996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다. 예방의학회 창립 50주년

예방의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학회를 관련 학회와 연계하여 개최키로 하고 예방의학회에서는 공통관심사를 주로 논의하고, 관련 학회에서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심층 토의하게 되었다.

라. 향후 발전방향

지난 50년을 회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꾀하기 위하여 논의하고 있다.

마. 지역보건의 목소리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방에서도 보건 의료에 연구비를 투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학에 의뢰해서 건강도시 등 보건 사업기획을 하는 데 바빠졌다. 아울러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회원들을 위한 학회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있다.

표 4. 總會沿革 및 歷代會

年度	學術大會			會長	任期	備考
	回	開催時期	場所			
1947	1	47. 5.10~11	서울醫大	4	崔義樞	朝鮮保健會長
1948	2	48. 5.28~29	"	22	"	
1949	3	49. 5	"		"	
1952	4	52. 5.11~12	梨花醫大		?"	51.12~52.11
1953	5	53. 5.30~31	釜山大法大	85	沈相煌	52.12~53.11 大韓衛生學會로 改稱
1954	6	54. 6.20~21	서울醫大		"	53.12~54.11
1955	7	55. 6.11~12	"		"	54.12~55.11
1956	8	56. 5.26~27	"		"	55.12~56.11
1957	9	57. 6. 8~9	"		"	56.12~57.11
1958	10	58. 6.14~16	"		"	57.12~58.11 (大韓公衆保健協會와 共同主催)
1959	11	59.10. 9~10	"		"	58.12~59.11
1960	12	60.10. 9~10	"		"	59.12~60.11
1961	13	61.10.14~15	國立保健院			60.12~61.11
1962	14	62.10.26~27	"		朱仁錫	61.12~62.11 大韓豫防醫學會로 改稱
1963	15	63.10. 7	서울醫大	38	金仁達	62.12~63.11
1964	16	64.10. 9~10	延世醫大	25	梁在謨	63.12~64.11
1965	17	65.10.23	國立保健院	35	曹圭常	64.12~65.11
1966	18	66.10.22~23	서울醫大	61	白行寅	65.12~66.11
1967	19	67.10.23	慶北醫大	61	權彝赫	66.12~67.11
1968	20	68.10. 4	서울大保健大學院	76	朱仁錫	67.12~68.11
1969	21	69.10.17~18	가톨릭醫大	44	方 塔	68.12~69.11
1970	22	70.10.30~31	서울豊田호텔	44	崔永泰	69.12~70.11
1971	23	71.10.15	서울大保健大學院	46	具然哲	70.12~71.11
1972	24	72.11.10	國立醫療院	67	車詰煥	71.12~72.11
1973	25	73.10.30	延世醫大		金命錫	72.12~73.11
1974	26	74.11. 1~ 2	春川세종호텔	72	鄭奎澈	73.12~74.11
1975	27	75.10.23~24	大邱금호호텔	60	李性寬	74.12~75.11
1976	28	76.10.23	서울大保健大學院	48	朴亨鍾	75.12~76.11
1977	29	77.11. 4~5	光州市가톨릭會館	58	宋仁炫	76.12~77.11
1978	30	78. 9.30	漢陽醫大	51	高應麟	77.12~78.11
1979	31	79.10.12	慶熙醫大	49	朴良元	78.12~79.11
1980	32	80.10.24	延世醫大	34	桂元喆	79.12~80.11
1981	33	81.10.30~31	釜山극동호텔	50	金敬均	80.12~81.11
1982	34	82.11.19	人口保健研究院	59	許 程	81.12~82.11
1983	35	83.10.28	가톨릭醫大	58	李昇漢	82.12~83.11
1984	36	84.11. 9~10	大田유성관광호텔	36	尹德老	83.12~85.11 會長任期 2年
1985	37	85.11. 7~ 9	경주코오롱호텔	36	"	
1986	38	86.11. 7~ 8	전주코아호텔	구연35지상22	金鶴舜	85.12~87.11
1987	39	87.11. 5~ 7	서귀포KAL호텔	구연55지상29	"	
1988	40	88.11. 3~ 4	경주도립호텔	69 28	金斗熙	87.12~89.11
1989	41	89.11. 3~ 5	부산한국콘도	48 27	"	
1990	42	90.11. 1~ 3			金炳佑	89.12~91.11
1991	43	91.10.31~11.2	광주무등산온천관광호텔		"	
1992	44	92.10.29~31	제주하이앳트호텔		최삼섭	91.12~92.11
1993	45	93.10.28~30	무주 리조트		문옥륜	92.12~94.11 이사장 (임기 2년)
					문영한	92.12~93.11 회장 (임기 1년)
1994	46	94.10.27~29	경주힐튼호텔		박항배	93.12~94.11 회장
1995	47	95.10.26~28	경주힐튼호텔		정종학	94.12~96.11 이사장
					김정순	94.12~95.11 회장
1996	48	96.10.24~26	경주힐튼호텔		윤임중	95.12~96.11 회장
1997	49				유승홍	96.12~98.11 이사장
					예민해	96.12~97.11 회장

8. 에필로그

가. 의학의 정의

(Henry Sigerist. A history of medicine. vol 1. Oxford Univ. Press, 1951)

"Medicine, by promoting health and preventing illness, endeavors to keep individuals adjusted to their environment as useful and contended members of society. Or, by restoring health and rehabilitating the former patient, it endeavors to readjust individuals to their environment."

나. Oliver R. Avison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장 훈사. 1929

"The President rejoices with you, the members of the class of 29 in your graduation. You are entering on the work of a noble and beneficent profession. Help all the sick you can but remember it is better to prevent sickness than to cure it.

By so doing you may lessen your opportunities for becoming rich but you will rise to the high position of public benefactors.

Christ restored the sinful to purity but His greater work was provision of power to keep men and society pure.

So public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end of medical study and effort. It can be promoted only through the education of people in the laws of health and only physicians can do such work as it should be done. It will be the glory of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if its graduates take a leading part in such a great work for Society."

Sigerist와 Avison의 글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든 의학도, 특히 예방의학도가 간직해야 할 것이라 믿는다. 예방의학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전문의제도의 원조인 미국에서 1948년에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 전문의가 생겼으며, 1952년에 예방의학 전문의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1953년에 항공의학분과전문의, 1955년에 산업의학분과전문의, 그리고 1960년에 일반예방의학분과전문의가 생겼다.

한국에서는 1963년에 예방의학전문의제도가 생겨 1997년 현재 551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었다. 이 중 상당부분은 개원의이며, 꾸준히 학회에 참여하는 회원은 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예방의학의 흐름을 살펴보고 필자는 앞으로 예방의학의 향방에 대하여 몇가지 점을 지적하며 말을 맺고자 한다.

첫째, 예방의학의 범주가 그려져야 할 것이다. 흔히 예방의학은 임상의학과 기초의학이 아닌 모든 영역이라고 놓담삼아 말한다. 이는 아마 예방의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속성과 능력 때문일 것 같다. 과연 예방의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어느 범주까지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믿는다. 공중보건 개념 위주로 성장한 한국의 예방의학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현재를 냉철하게 다시 짚어보는 해지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둘째, 예방의학전문의의 역할, 기능, 전문가적 능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심장수술은 흉부외과전문의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예방의학전문의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예방의학전문의가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전문의는 할 수 없는가? 아니, 임상 전문의가 하면 안 되는가? 아무나 할 수 있는가? 예방의학전문의는 학자인가, 교육자인가, 아니면 예방의학 시술자인가? 예방의학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수련하는 것이 좋을까?

셋째, 예방의학의 분야별 발전과 관련 학회와 관계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예방의학 학술대회에서 역학, 보건관리, 환경산업보건으로 분야별로 연제발표를 한다. 그리고 다시 역학회, 보건행정학회, 산업의학회에서는 각각 별도로 학회를

운영한다. 사람은 대개 그사람이 그사람이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의 모를 기할 것인가?

넷째, 예방의학전문의와 산업의학전문의의 관계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예방의학 분야 중 산업보건 영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학자는 각자의 연구 관심에 따라 일을 하겠지만, 학회로서는 분명하게 어떤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예방의학수련기관에서 1인 2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다섯째, 미래는 예방의학의 시대라고 하는데, 예방의학의 미래를 미리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차예방과 2차예방, 3차예방을 포함하고, 건강증진을 피하면서 개인예방보건서비스를 강조하여야 할 것은 자명하다. 이번 학회창립 50주년을 맞아 큰 획이 그어져 다음 50년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되리라 생각한다.

원로,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50주년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를 위하여 우리 예방의학교실의 김한중주임교수, 손명세총무와 신동천학술부장을 비롯한 교실원 여러분이 적극적 혼신적으로 힘써 주어서 잘 끝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울러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즈음, 여러 곳에서 많은 재정지원을 받아 잔치를 잘 치렀기에 협찬해주신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합니다.

부록 1.

農村衛生研究所要覽

(4286年12月)
(1953)

全北沃溝郡開井面開井里

財團法人農村衛生院

農村衛生研究所

目 次

1. 財團法人農村衛生院設立趣旨及寄附行爲	1
2. 農村衛生研究所組織系統表	7
3. 研究所設立趣旨	8
4. 研究所的目標與態度	9
5. 研究所組織機構	9
6. 研究所職員定員一覽	12
7. 診療機關利用地域	13
8. 累年取扱患者數	13
9. 累年研究所機關、職員及經費一覽	14
10. 研究業績	15
11. 研究所沿革日誌	19

1. 財團法人農村衛生院設立趣旨

民族의源泉이며 希望的農村은 500 年 李朝專制政治外 40 年異民族統治下에서 恒常壓迫과 掠取의對象이 되며 農民은 農奴로서 貧窮과 疾病과 無智의三重苦에서 脫치못하고 今日의極度의疲弊相을 呈하게 되었다.

農村의環境과 其原始的生活相衛生思想의 全無와 迷信의 盛行露師의 都市集中과 農村醫療離隔이 公衆衛生指導而 없었던 現實은 今日의 農村으로 하여금 蔓延一路의 結核性 disease 日本人과 米國人의 3~6倍에 達하는 梅毒感染率 全農民이 侵害을 받고 있는 各種寄生虫等 体质을 低下시키는 民族毒을 等而高度의 乳幼兒死亡率 消化器疾患 其他許多疾病의 潛床으로 化하고 民族退化的 老衰現象이 加速度로 進行되고 있음은 統計的數字가 이를 立證하고 있는 면吾人の 17年 農村醫生活에서 体验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現象은 近代文明國家에서는 그들의 科學特有治療醫學公衆衛生學의 發達과 人類的文化向上의 路으로 이미 數十年도는 其以前에 解決되었고 보다 腸健康壽命의 延長 그 生活의享樂을 為하야努力하고 있으며 敗戰後日本에 있어서도 그들의努力와 占領軍當局의 適切한指導로 써各種疾病特有結核病의 激減과 平均壽命의 延長을 韓導하고 있는 것이다.

民族의 代表 農民의 保健現象이 이와 같이 艱難處地에 있는 今日人類史上 類 없는 感忍한 2.5戰火의 受難은 民族退化를 一層促進시키고 있으며 其深刻한影響은 長久한 歲月에亘하야 民族保健에 一大異現象을 招來할것은 屢然한事實이다 戰化前이나 只今이나 國內輿論의動向이 恒常政治經濟產業問題에 있어서는 非常的關心과興味로 써論議되고 있으나 保健特有 農村保健問題에 있어서는 一部皮相的呼訴가 不無하나 與論化에 達치못하고 今日까지 放任狀態에 處하고 있음은 實로慨歎할바라 아니 할수 없다.

不遠한 將來에 國家再建의 巨大한 發足과 千載一遇의 機會到來를 傳하고 있는 今日為政家나 醫家나 其他各界指導層은 率先 農民保健의 正體動向을正確히 把握認識하므로 써過去의 都市偏重政策을 斷然은 正하고 都市保健計劃進行과 併行하야 全國 農村保健網의 完成을 積極推進시켜 民族繁榮과 國家復興의 基礎가 確立되기를 要望하야 마지 안는 바이다.

吾人同志는 日政十年間 全國의 農村으로有名하여 八割以上이 日人農地로서 構成된 全北平野部沃溝金堤 및 井邑等 農村地帶에서 그들 小作人을 為한 施療事業에 從事하여 効果의 仁慈事業을 体验하고 解放後 그들 農民의 热望과 軍政 및 우리政府 農林部의 莫大なる經濟的援助로 써 農村醫療事業을擴充하는 한편 農村衛生研究所를 設立하야 農民生活 農村環境의 科學的調查研究指導 및 事業運營의 要素인 農村保健技術員養成에着手하야 農村保健界에 새롭운 希望을注入하기에 努力中이다 然而 此種事業은 其性格上個人의 营利를 떠난 公益事業으로서 國家나 社會公共團體運營으로서만이 能히使命을 完遂할 수 있음을 倘念하고 있는 吾人은 日政時부 허獨創的又는 能動的運營을 할

수 있는法人組織達成에 盡力中이었으나 解放과 同時에 搦拆被毀 今日에 室空부
現研究所事業體系가 大体로 整備되고 農村基盤도樹立되었으므로 基本財產의 貧
弱及施設未備가 不無하나 今般農村衛生研究所及所屬機關施設一切을 包含한 財
團法人農村衛生院을 組織하야 農村醫療事業 農村衛生研究 公衆衛生指導 卫生
技術員養成其他健康農村育成을目的하는 必要한事業을 實施하는 農村公益機關으로
서 社會에 提供하야 ullen負荷使命達成에 努力코저하는 바이다

許多한 難關이豫想되는 本事業前途에 있어서 農村青年男女 農村婦人 農村社會
의各團體 官廳 學校 異界其他各界指導層의 理解協調와 鞭撻 그리고 國會와 政
府의 強力한指導와 援助는 使命遂行의 絶對要件이며 運營當事者의 非常한努力와 忍
耐도 이要件의 合致 없이 目的達成은 不可能한 것이다

崇高한目標下에 本法人을 設立함에 있어 쟁本人은 數千年來의 祖上 朝安息 亂世 明
日의 나의 安息處인 내故鄉兄弟들이 三重苦의 長久한生活에서 造成된 今日의 農村情況
에 깊은 理解와 同情을 가진 社會各界人士의 聲援이 真實로 民族의 源泉으로서의 健康農
村 理想 農村의 出現을 促進시킬 것을 確信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1984年9月

設立者 李 永 春

財團法人農村衛生院寄附行爲

第一 章 目的 及 事 業

- 第 1 條 本法人은農民保健의向上發展을圖謀하야健全한農村을育成하므로써
目的함
- 第 2 條 本法人은前條의目的을達成하기爲하야다음의事業을行함
1. 農民生活全般에亘한科學的調查研究及獎勵
 2. 農民生活의公衆衛生指導及施設普及
 3. 治癒又是輕費診療를本旨로하는農村醫療機關의設置運營及普及
 4. 公衆衛生技術者養成供給
 5. 政府農村保健施策에對한建議及政府要請에依한特定調查研究의
實施報告
 6. 其他目的達成에必要한事業

第二 章 名稱 及 事 業 所

- 第 3 條 本法人은財團法人農村衛生院이 라稱함
- 第 4 條 本法人의事務所是全羅北道沃寧郡開井面開片里413番地에置함

第三 章 資 產 及 會 計

- 第 5 條 本法人의資產은下揭한것으로서組成함
1. 本法人設立當初農村衛生研究所代表 李永春이 出捐한別紙財產
目錄記載의財產
 2. 設立後本法人에對한寄附
 3. 資產에서發生하는發益
 4. 其他의收入
- 第 6 條 資產中下揭한것은基本財產으로함
1. 別紙財產目錄에指定한基本財產
 2. 基本財產에編入할것을指定하야寄附한財產
 3. 理事會에서基本財產에編入을決議한財產
- 第 7 條 基本財產은 이를處分할수있음 但事業遂行上特히必要한時は本法人
設立者の同意와理事會의決意로써 이를處理할수있음
- 第 8 條 本法人資產의管理方法은理事會에서 이를定함
- 第 9 條 本法人의經費는基本資產以外의資產으로써 이를支辨함
- 第 10 條 本法人의豫算은年度開始前理事會의決議를經하여 이를定하고豫算은
年度終了後二個月以內에理事會의承認及監查의監查를經함을要함
豫算內支出을하기爲하여其會計年度內의收金으로償還하는一時借入

金以外의 借入金은 理事會의 承認을 得함을 要함

第 11 條 本法人의 會計年度는 每年 四月一日에開始하여翌年三月三十一日로 終了함

第四章 役員

第 12 條 本法人에 下의 役員을 置함

1. 理事三名以上七名以內
2. 監事二名
3. 評議員五十名以內
4. 顧問若干名

第 13 條 理事及監事는 理事會에서 選任함 但本法人設入當初의 役員은 法人設立者가 이를 定함

評議員及顧問은 理事會의 推薦에 依하야 理事長이 委嘱함
監事는 他役員을 兼할 수 없음

第 14 條 理事中理事互選으로써 理事長一名을 置함

理事長은 本法人業務을 總理하고 本法人을 代表함
理事長有故時は 理事會의 協議에 依하야 他理事其職을 代理함
理事는 理事會을 組織하고 本寄附行為에 定한 事項 및 本會事業遂行上 必要한 事項을 審議決定함

監事는 資產及 本法人業務執行事項에 對하야 意見을 開陳함

第 15 條 理事의 任期는 四年 監事의 任期는 二年으로 함 但重任도 無妨함
評議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함

補缺로서 選舉된 役員의 任期는 前任者 残任期間으로 함
本法人初會理事半數以上에 限하야 任期는 二年으로 함

第五章 會議

第 16 條 理事會는 理事長이 이를 招集하고 其議長이 主

第 17 條 理事會는 現在員의 過半數出席이 아니면 開會치 못함

第13條 第20條 第21條所定事項을 會議의 目的으로 할 時遇에는理事四分之三以上出席을 要함

第 18 條 議事는 特히 定한 外는 出席者의 過半數로 서 이를 决함 可否 同數인 時는 議長의 决定에 依함

第 19 條 會議에 出席할 수 없는 會員으로서 書面으로 또는 他出席者에 委任하야 表決權을 行事할 時遇에는 出席者를 認定함

第六章 寄附行為의 變更及 解散

- 第 20 條 本寄附行爲의條項을變更고지할時는理事會의決議를經하야主務長官의認可를得할을要함
- 第 21 條 本法人은 第 1 條의目的을達成할수 있는境遇理事總數의 四分之三以上의同意로써解散할수 있음
解散에依한殘餘財產은理事會의決議로써類似한目的事業에 寄附함

第七章 附 则

- 第 22 條 本寄附行爲施行特規及細則은理事會에서別途定함
- 第 23 條 本法人設立者는本法人設立認可와同時に理事長으로서의理事가되
本法人設立當初의理事及監事를 아래와 같이定함

理	事	金	鳴	善
理	事	池	遠	海
理	事	李	永	春
理	事	崔	在	裕
理	事	吳	永	泰
理	事	金	英	主
監	事	金	聲	煥
監	事	李	要	漢
監	事	金	泳	煥

本法人顧問은寄附行爲第13條에依하야다음과같이委囑함

顧問 農林部長官	顧問 國會正副議長
全 保健部長官	全 國會農林分科委員長
全 財務部長官	全 大韓醫學協會長
全 文教部長官	全 全羅北道知事
全 社會部長官	

法人設立認可函은全羅北道知事由農林部及保健部長官에提出한바兩部長官合議後에下記와如同農林部長官으로부서可
證

設立認可證

歸農第1號

全羅北道沃溝郡開井面開井里

李 永 春

財團法人農村衛生院設立을認可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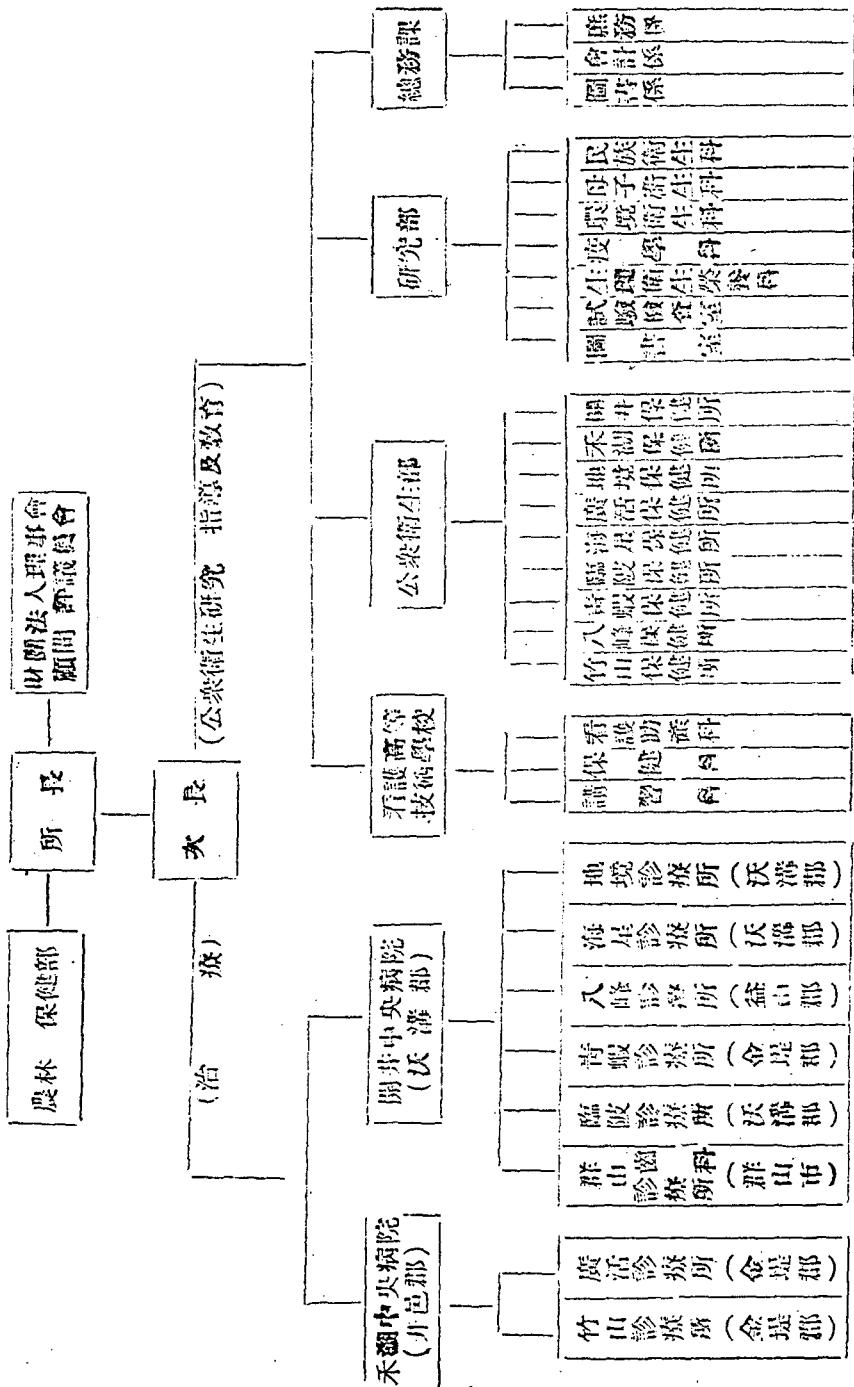
檀紀4284年9月25日

農林部長官 任 文 植

財團法人農村衛生院資產目錄

資產金額		1,577,820圓
甲 基本資產		1,268,660圓
1. 土地	732坪	3,660圓
2. 建物	349坪	1,265,000圓
乙 一般資產		
1. 什器	586點	95,170圓
2. 醫療器具	1,166點	188,060圓
3. 圖書	437點	25,930圓

2. 農村衛生研究所



3 研究所設立趣旨

一個人體의壽命長短과盛衰가 있음같이 民族에 있어 서도 盛衰興亡이 있음을 본다 人類史上燦爛한文化를造成한羅馬와希臘民族은 都市文化生活의產物인奢侈와享樂으로 因하야 壁胎의 流行과 健康의 隨弱으로 民族生物學의 逆現象의 現出와 아울러異民族의 離換으로 써 衰亡한史實은 많은 歷史的文化民族과 또는 現代文化國家에서도許多한事實로 之立證되고 있으니 真實로民族의 將來는 其民族의 健康(質)과 自然增加(量)에 懸垂하여 있음을 알수가 있다

우리는過去40年間異民族統治下에呻吟하면서도民族의純粹性과古有文化를確保하여 現代文明을吸收하야 社會各方面에 많은發展을招來하였거니와 이려 한發展은 專혀 都市에集中되었고 우리의農村은 40年前이나 只今이나 別變遷이 없으며 오히려 農村中心人物이 거이都市移生로 因하야活氣를失한去勢者와도恰似하다 우리人口의 七割의絕對數가 農民으로 構成되 있다 하면 農民의 健康 農村의 culture發達與否가民族과國家의運命을決定할것이고 都市文化만이 高度의發達을誇張한다 할지라도 卒身不育의役割不適하다는點을 證者는 犯肅司省察하여 야 할것이다

余는過去15年間農村醫生活에서 体验과調查로 之漸次로民族退化의 逆現象이 展開되고 있음을 切實히 經驗하고 있으며 이 現象이 放置된다면 不遠한 將來에 歷史의衰亡을 反復할수밖에 없는運命임을 切感한다. 結核病은 等々蔓延一路에 있으며 農民의 一割五分内外가 潛在性梅毒患者이며 九割內外가 寄生虫의宿主며 그中十二指腸虫과 肝「지스토마」같은 生命에威脅을 주는者地域의으로濃淡은 있으나漸次로增加되고 있으니 如上의 三大疾病을民族毒의 代表者이며 尚今世界最高位의 乳幼兒死亡率各種急性傳染病 文明國에서는 稀有한許多한 疾病 飲料水斗衣食住의不完 不良한生活環境等 農村은 一般의想像에反하야 健康障礙의 條件으로充满한感이 不無하다. 이려 한情況에 對處할 現代醫療施設 公衆衛生面斗生活衛生面은 거이全無하야生命의 保護를 呼訴할道理가 없으며 原始의 民間療法과 漢方治療에 依持하여 或은 巫女의 祈禱에 生命을 寄托하는 等貧窮과 疾病의 二重苦로呻吟함이 農村民의 實情이다

1946年國際聯合은 世界保健機構規約에서 健康이라 함은 完全한 身體精神及社會的福祉의 狀態를 말함이요 決코 疾病敘하고 虛弱치 않다는 것を云爲함이 아니라고 하고 最高水準의 健康을 享有함은 人種 宗教 政體 經濟又는 社會狀態에 關係敘이 全人類에 賦與된 基本的權利며 安全保證의 基礎며 一國家의 健康增進保護의 達成은 乎一般他國家의 利益이 되는 것임으로써 各國政府는 國民健康確保에 重大한 責任이 있다고 宣明하였다

新生大韓民國이 國際舞台의 一員으로서 登場하게 된 아래에 為政家와 醫學者와 모든指導者은 民族健康의 主體動向을正確히 把握認識하여 確固한 國策의樹立과 實踐으로서 民族進路에 希望과 光明이 있기를 期待하여 마지 안는 바다

農村에居住하며 現實農村에 深甚한 謹心을 갖인吾人同志는 世界保健機構創立精

神에順應하야過去農村醫療事業을基礎로茲에農村衛生研究所를創立하고健康農民을育成함으로써農村文化의發展을圖謀하고한다

1948年11月

研究所長 李 永 春

4 研究所의 目的과 態度

目的

- 民族의永遠한發展은其源泉이 遍全한農村에 있음을確念하고醫學上合理的으로擁護코저研究努力함(農村衛生)
- 現代公衆衛生學의理論과指導原理를應用하야農村社會의農民生活을究明批判하여 健康을障碍하고体力를消耗시키는生活條件과其內容을改善革新코저함(調查研究와衛生指導)
- 現實農村은緊急히醫療施設을要求한다 그려므로醫療施設普及促進과아울러公衆衛生指導의實踐으로醫學의兩面活動을展開코저한다(醫療施設普及)

態度

- 祖國文化建設의目的達成을念願함에있어서우리는知識과技術만으로는到達치못하리라고믿는다 真理를探求하는科學는奉仕의道德과人格의修練이要請되는것이다 우리는knowledge技術의鍛磨와아울러人格의修練을研究所의態度로발표한다(奉仕의道德人格의修練)
- 우리의現實農村은너무도難關이많다 그러나一夕히그難關을解決해야할途程에있다 그려므로研究者は非常한忍耐와努力의要求를覺悟하고 勇敢히이를突破해가고자한다(忍耐와努力)
- 우리의事業은國家와社會의絕對의包理解와協調를要求한다 特히青年醫學徒의舊發과協調를얻어使命의完遂를期하고자한다(協調精神)

5 研究所組織機構

甲 豫防醫學(衛生)方面

- 研究所本部(全羅北道沃溝郡開井面開井里)

研究所長 李 永 春 (世醫專) 在職19年
醫學博士

總務課

課長 金 奎 聖 (延專商) 5年

庶務 會計 豫算 財產管理 物品出納管理

備品及文書保存 其他各部에屬치안는事項一切

2. 研究部	部長 李相軒 (世醫專)	3年
1. 民族衛生科	兼科長研究員 李相軒	
農村人口動態 衛生統計 優生遺傳 精神衛生 農民心理及保健經濟에 關한事項	全 李世衍 (世醫專)(兵役中)5年	
	全(兼) 高甲檉 (世醫專)(兵役中)3年	
	全(兼) 任周鳳 (京醫專) 1年	
	全(兼) 趙賛璽 (京法專) 3年	
2. 母衛生科	科長 研究員 尹錫宇 (世醫專)	6年
母性衛生 妊娠產育 分娩 乳幼兒哺育發育疾病及學 童衛生에關한事項	全(兼) 金更湜 (世醫專) 12年	
	全(兼) 李栽熙 (世醫專) 6年	
	全(兼) 金敬實 (京女醫專) 5年	
	全(兼) 尹德鎮 (世醫專) 2年	
	全(兼) 池憲澤 (京齒專) 1年	
3. 疫學科	科長 研究員 李根泰 (世醫大專)	3年
急性及慢性傳染病 寄生虫 風土病의發生原因蔓延及 被害에關한事項	全(兼) 金永燮 (京醫專) 3年	
	全(兼) 金中煥 (京醫專) 6年	
	全(兼) 蘇鎮卓 (世醫專) 5年	
4. 環境衛生科	研究員(兼) 金聲煥 (世醫專)	13年
上下水道 污物處置 住宅 飲食物及飲料水에關한衛 生及衛生化學的調查研究 事項	全(兼) 尹文虎 (世醫專) 4年	
	全(兼) 朴鍾台 (光醫大專) 兵役中 4年	
	全(兼) 李柱完 (서울藥大專) 4年	
	全(兼) 李柱七 (檢定合格) 15年	
5. 生理榮養科	科長 研究員 沈鳳燮 (서울醫大專)	兵役中 3年
勤勞休養 体格機能 日常 生活의生理衛生 環境條件 及榮養全般에關한事項	全(兼) 李鍾勛 (世醫專) 3年	
	全(兼) 金近鎬 (光醫大專) 3年	
	全(兼) 金泰淵 (世醫專) 3年	
	全(兼) 徐与源 (光醫大專) 2年	
中央試驗室	兼室長 研究員 尹錫宇	
研究所及各診療機關의需 要에依한細菌培養 病理 組織檢查 食品分析檢查 血液排泄物其他諸般檢查	細菌士 崔承祚 5年	
	全 安裕吉 3年	
	全 吳有珍 3年	
	全 池八峰 兵役中 5年	
圖書室	兼室長 研究員 李根泰	

3. 公衆衛生部 部長 研究員 金 庚 混

1. 開井保健所	所長兼研究員	金 中 煥	
2. 禾湖保健所	全	金 肇 煥	6. 青蝦保健所 所長兼研究員 李 柱 七
3. 地境保健所	全	金 庚 利	7. 竹山保健所 全 尹 文 虎
4. 廣活保健所	全	李 鍾 助	8. 八峰保健所 全 蘇 鎮 卓
5. 海星保健所	全	任 周 凤	9. 臨駁保健所 全 金 泰 潤

農民生活에對한公衆衛生指導 啓蒙을實踐함 其基本機能은 다음과 같다

1. 傳染病防治事業
2. 寄生虫撲滅事業
3. 結核防治事業
4. 性病預防事業
5. 母子保健事業
6. 荷養改善事業
7. 環境衛生改善事業
8. 公衆衛生教育事業

4. 衛生教育部

1. 開井高等衛生技術員養成所(研究所構內)

養成所長 兼 研究所長

1) 目的: 農村農村社會의 公衆衛生指導人物을 育成하기 爲 之 設立

2) 設立認可: 4284年7月9日付 保健部長官認可

3) 本養成所에 下記科 目置함

保健科: 保健員을養成함

入學資格 開井看護高等技術學校卒業者又는看護員有資格者
至少2年以上實務에從事한者

修業年限 6個月 (3個月學科 3個月實地訓練)

定員 30名以内

講習科 初中高等學校教師 養護教師 各團體衛生指導者를 短期
不定期開講함

第1回 講習科(學校衛生)國民學校教師57名修了(4285年8月)

第2回〃〃〃 全 93名修了(4286年8月)

第3回〃〃〃 中高等學校教師 4287年1月開講豫定

2. 開井看護高等技術學校(研究所構內)

學校長 李 永 春

校監 李 泳 奇

本校는 高等衛生技術員養成所의 看護助產科로서 保健部長官으로부터 認可
되었으나 保健、文教兩長官會議에 依하야 教育法의 高等技術學校에 依하
야 設立키로 되여 4286年7月21付 文教部長官으로부터 設立認可를

看護助產科: 看護員與助產員을養成함

入學資格 中學校3年修了者

修業年限 3個年

定員 90名以内

現學生數 第1學年29名 第2學年28名 第3學年22名

計79名

寄宿舍 看護助產科及保健科生은 全部寄宿舍에 合宿 飲事及教科書1部
又는全部供給 할 수 있음

乙 治療醫學(醫療)方面

診療機關

機 關 名	所 在 地	開 設	分 科	收 容 力	責 任 者
開井中央病院	沃溝郡開井面	1935.4	內科 小兒科 外科 皮膚性病科 產婦人 科 眼科 耳鼻科 X 光線科	80	院長 副院長 金永燮 金中煥
禾湖中央病院	井邑郡禾湖里	1935.4	內科 小兒科 外產 婦人科 眼耳鼻科 X 光線科	60	院長 副院長 金聲煥 高甲權
地境診療所	沃溝郡大野面	1935.4	內小科 外科	10	所長 金經식
海星診療所	沃溝郡米面	1948.3	各科一般	6	全 任周鳳
廣活診療所	金堤郡廣活面	1948.3	全	6	全 李鍾勛
青蝦診療所	金堤郡青蝦面	1949.1	全	.	全 李柱七
竹山診療所	金堤郡竹山面	1951.6	全	.	全 尹文虎
八峰診療所	益山郡八峰面	1951.6	全	.	全 蘇鎮卓
臨陂診療所	沃溝郡臨陂面	1951.12	全	.	全 金泰淵
群山齒科診療所	群山市榮洞	1952.2	口腔外科一般	.	全 池憲澤

6 研究所職員定員一覽

機 關 名	所長	副所長	部課長	研究員	研究員	教授監講師	當直醫	書記	技士	看護員	助手	補看護員	備員	計
研究所總務課	2	1					4			5		6	13	
研究部		1	6(19)					4		5		1	17(19)	
公衆衛生部		1	(9)						(6)	(6)		(6)	1(25)	
衛生教育部	1	1		4(15)			1					3	10(13)	
開井中央病院		1	10		5	2	1	8	3			5	35	
禾湖中央病院		1	5		3	2	1	5	2	10	,5	34		
地境診療所			2				1		1	2	4	2	12	
海星診療所			1						1	1	2	2	7	
廣活診療所			1						1	1	2	1	6	
青蝦診療所			1						1	1	2	1	6	
竹山診療所			1						1	1	2	1	6	
八峰診療所			1						1	1	2	1	6	
臨陂診療所			1						1	1	2	1	6	
群山齒科診療所			1					1	1		2	1	6	
計	3	6	30(28)	4(15)	8	10	7	21(6)	18(6)	28	30(6)	165(61)		

7 診療機關利用地域

機 關 名	通常利用地域(一般)	人 口	特殊利用地域(重患)	人 口
開井中央病院	沃溝郡 珞井面 玉山面 塞山面 滄縣面一部 群山市一部	78,728	沃溝郡 益山郡 群山市 裡里市 金堤郡一部 忠南舒川郡 論山郡	968,015
禾潤中央病院	井邑郡 新泰仁邑 永元面 梨平面 金堤郡 扶梁面 月村面一部 扶安郡 白山面	70,161	井邑郡 扶安郡 高敞郡 金堤郡一部	521,474
地境診療所	沃溝郡 大野面 滄縣面一部 益山郡 五山面一部	27,423		
海星診療所	沃溝郡 米面 沃溝面	38,805		
廣活診療所	金堤郡 廣活面 進鳳面 聖德面一部 萬頃面一部	27,762		
青蝦診療所	金堤郡 青蝦面 萬頃面 部 白鷗面一部	20,646		
竹山診療所	金堤郡 竹山面 塞德面一部 扶安郡 東津面一部	25,104		
八峰診療所	益山郡 八峰面 三箕面 王宮面一部	23,887		
臨波診療所	沃溝郡 臨波面 瑞德面	21,282		
群山齒科診療所	群山市	74,447		
計		408,347		1,589,489

8 累年取扱患者數

年 度	診 機 關 數	施療患者數	%	有料患者數	%	患者總數	
						6,574	
1935	巡回診療 4個所	6,574	100%			6,574	
1936	5個所	9,278	"			9,278	
37	"	10,102	"			10,102	
38	"	10,489	"			10,489	
39	3	13,071	"			13,071	
40	"	17,111	"			17,111	
41	6	26,049	"			26,049	
42	6	28,286	"			28,286	
43	6	33,972	"			33,060	
44	7	35,060	"			35,060	
45	6	26,425	"			26,425	
46	7	8,458	35.1	15,636	64.9	24,094	

47	6	8,984	33.6	17,691	66.4	26,675
48	7	16,476	36.5	23,658	63.5	45,134
49	•	23,382	31.1	51,644	68.9	75,024
50	•	16,627	24.1	55,255	75.9	72,883
51	10	142,556	72.5	54,009	27.5	196,565
52	〃	114,306	71.4	45,605	28.6	159,911
53	(4月-11月) 8個月	65,899	63.2	38,662	36.8	104,561
計		614,105		307,158		921,253

9 累年機關數 職員數及經費一覽

年 度	機 關 數					職 員 數				經 費		
	研 究 所	技 術 員	中 央 病 院	診 療 所	計	醫 師	看 護 員	技 士	其 他	計	經 常 費 及 設 資	出 處
1935				巡回 (4)	巡回 (4)	1			1	2	5,384	熊本利平氏出借
1936				巡回 (5)	巡回 (5)	1			1	2	8,346	"
37				0	〃	1			3	4	11,002	"
38				〃	〃	2			3	5	10,712	"
39				3	3	3	2		4	9	20,228	"
40				1	1	3	4		4	11	23,895	"
41				1	1	2	4		4	10	24,674	"
42				0	0	3	4		5	12	32,469	"
43				0	0	3	8		5	16	41,158	"
44				0	0	3	11		5	19	81,947	"
45				0	0	3	11		5	19		
46				0	0	3	10		5	18	673,764	新韓公社補助 (500,000)圓
47				6	6	6	15		9	30	10,749,000	(10,069,761)
48	1	1	1	6	8	10	24		19	57	38,669,278	(35,747,710)
49	1		2	5	8	16	29	4	29	78	51,492,673	農地管理局補助 (35,873,100)
50	1		2	5	8	26	29	7	27	89	94,475,217	" (68,840,200)
51	1	1	2	8	12	28	37	7	49	121	235,355,280	(65,420,800)
52	1	1	2	8	12	30	39	7	57	133	872,133,000	(400,197,000)
53	1	1	2	8	12	28	30	7	52	117	27,739,000	圓 (17,005,000)圓

解放後收支運營狀況

年 度	收			入			支			出	
	診療收入 元	%	其他收入 元	%	補助金 元	%	計 元	施設費 元	%	經常費 元	%
1946	86	12.7	92	13.7	500	73.6	672			678	100
1947	679	6.3			10,069	93.7	10,748	5,966	55.5	4,723	44.5
1948	1,417	3.9	1,450	3.7	35,747	92.4	38,669	24,753	64.2	13,916	35.8
1949	11,619	22.9	1,000	1.9	38,873	75.2	51,492	16,650	32.3	34,841	67.7
1950	25,547	27.0	88	0.1	68,840	72.9	94,475	16,326	17.3	78,149	82.7
1951	159,741	67.2	10,198	4.5	66,420	28.3	235,355	—	—	232,355	100
1952	449,108	51.5	13,833	1.5	409,192	46.9	872,133	157,344	18.1	714,789	81.7
1953	983,400	35.4			1799,500	64.5	2,773,900	1,315,266	47.4	1,458,634	52.6
預算											

10. 研究業績

年 度	題 目	發 表 者	學會及發表誌
1935 全	農民의所謂四大疾病에對하야 2.3 内分泌物質과過敏症	李永春	朝鮮醫學協會學術講演會
1938	農村小學兒童의微熱	〃	鮮華聯合醫學會(新京)
1939 全	朝鮮農村小學兒童의微熱과學 業成績과의關係 學校衛生의再檢討	〃	第18回日本學校衛生會總會 沃溝郡教育會總會
全	學校衛生計劃樹立方針概要及 感想	〃	出版
全	學校衛生의使命	〃	群山市沃溝郡聯合教育會總會
1940	農村小學兒童의結核感染率과 教室內坐席과의關係	李永春 金聲煥 金相殷	第1回朝鮮醫學協會總會
1941 全	學校身體檢查用具室衛生器具 藥物材料及救急處置法 學校衛生概論	李永春	出版
1942 全	農民의梅毒感染率에對하야 學校醫務서의 2.3調查事項	李永春 鄭仁熙 李永春	沃溝郡學校衛生講習會 朝鮮醫學會總會
1943 全	農村國民學校兒童의疾病狀況 水瘤患者에對한 『술과민』療法 當診療所外來結核患者에對한 Ceparantlin療法底續	李永春 金聲煥 李永春	總督府學務局提出
全	過去三假年間의 大野國民學校 學童身體檢查上에나타난疾病 變動에對한考察	李永春 金庚斗	朝鮮醫學會總會
			全北教育會特別施設研究會

1947	蛇毒症에對한 Cephaanthin療法 斗卓効	李永春 金聲煥 李奉鎬	第1回朝鮮醫學協會總會
48	農村學校兒童의爪甲內寄生虫卵検査成績	蘇鎮卓	全北醫報二號
全	子宮脫의民間豆法으로因한腔 狹窄	車璣濬	夕
全	過去13年間取扱農村患者疾病 種別에對한考察	李永春 尹錫宇	全北醫師會總會
全	農村結核에關한研究(第1報) 沃溝郡玉山面民의結核感染度 高度狹窄骨盤의自然分娩例 麥蛔寄生虫에關한研究(第1報) 萬項江及東津江流域農民의 肝지스도마感染調查	尹錫宇 徐正柱 車璣濬 李栽熙 金聲煥 金泰潤 尹錫宇 朴鍾茂 李漢桂	世醫大學術集談會 農村衛生1卷1號 農村衛生1卷1號 第2回大韓醫學協會總會 農村衛生1卷1號
全	妊娠에合併된巨大卵巢囊腫1例	車璣濬 李栽熙	第2回大韓醫學協會總會
1951	農村結核에關한研究(第2報) 金堤郡廣活干拓農民의生活 環境及結核感染度	尹錫宇 梁在謨	世醫大學術集談會農村衛生 第2卷1號
全	沃溝郡開井面民의結核感染度 金堤郡廣活干拓農村民의寄生 虫調查	尹錫宇 徐正柱 尹錫宇外	世醫大學術集談會
全	慶州梅毒에關한研究(第1報) 農村國民學校學童의先天梅 毒調查	金夏昌 尹錫宇 李世衍 崔承祚	未發表
全	農村梅毒에關한研究(第2報) 農村青年의梅毒感染度	尹錫宇 崔承祚	農村衛生1卷1號
全	農村梅毒에關한研究(第3報) 一般農民의梅毒感染度	全	未發表
1950	農村國民學校學童의寄生虫調 查成績	金經湜 尹錫宇 崔承祚	全
全	農村學童의健康狀態에關한研 究	金經식 金中煥 金敬實 尹鏡宇 李世衍	全北道健康教育研究會
全	農村學童年令의戶籍斗實際外 의差異에關한考察	尹錫宇	農村衛生1卷1號
951	最近美國의農村衛生運動	李永春	研究所第1回集談會
全	寄生虫의外科의意義	金永燮	農村衛生1卷1號
全	食事에依한脾液分泌의消長	金近鎬	農村衛生3卷1號
全	迴腸終末炎5例	朴鍾台	農村衛生1卷1號
全	農村寄生虫에關한研究(第2報) 萬項江流域의肝지스도마第 2中間宿主調查成績	蘇鎮卓	全

全	農村國民學校學童의趾爪內寄生虫卵檢査成績	蘇鎮卓	未發表
全	沈漬內에서의 十二指腸虫卵及仔虫의 運命에 關한 研究(第1報)	全	農村衛生1卷1號
1951	精神醫學에對한 나의 見解	李相軒	研究所第1回學術集談會
全	尿疲勞反應에 關한 研究(第1報) Donggio反應 斗余의 變法	沈鳳燮	農村衛生1卷1號
全	精神疲勞測定으로서의 挑消法 에 關한 考察	李根泰	農村衛生2卷1號
1952	精神身體醫學	李相軒	未發表
全	沈漬內에서의 十二指腸虫卵及仔虫의 運命에 關한 研究(第2報) 土壤內自由生活線虫(非子虫)으로서의 實驗	蘇鎮卓	農村衛生2卷1號
全	沈漬內에서의 十二指腸虫卵及仔虫의 運命에 關한 研究(第3報)	全	全
全	農村寄生虫에 關한 研究(第3報) 益山郡八峰農村에서 의구虫(十二指腸虫)幼虫에 依한 土壤污染狀態	全	全
全	Trachoma의 Aureomycin療法	金敬實	未發表
全	肝床에 發生한 特發性輸胆管擴張症의 1例	金近鎬 朴鍾台 蔡圭日 金順泰	全
1952	銳傷后에 發生한 化骨性筋炎의 1例	金近鎬	未發表
全	過去4年間의 沃溝地方에서 流行한 「感冒」의 統計的 考察	金中煥	發表豫定
全	尿疲勞反應에 關한 研究(第2報) 赤血球沈降速度 斗余의 變法	沈鳳燮	農村衛生2卷1號
全	營養失調症의 血液水分量血液及血量比值에 關한 研究	全	全
全	農村兒童의 智能과 血液型	李根泰	發表豫定
全	全北平野部住民의 「마라리아」逐病狀態에 關한 調査	李根泰 沈鳳燮	全
全	前胸壁食道整形手術	金永燮 金近鎬 朴鍾台	大韓醫學協會學術大會
全	沃溝郡民6萬余名에對한 結核感染率調查成績	研究員一同	發表豫定
全	群山裡里及沃溝地方孤兒院兒童의 結核感染率調查成績	全	全
全	沃溝郡及群山市國民學校兒童의 結核感染率調查成績	全	全

1950	低榮養症의臨床的觀察 19. 3. 接夏季全北地方에發生 한流行性腦炎의臨床的觀察及 氣候와의關係	尹德鎮 金 경식 尹德鎮	農村衛生2卷1號 大韓醫學協會學術大會
	先天性肺動脈狹窄症手術自驗 例	金永燮 蔡奎日 金順泰	〃
	天然痘合併症이로發生하는化 性關節炎 體質의 心理學的考察	蔡奎日 金順泰 李相軒	〃 農村衛生2卷1號
	黑頸江流域接息各種貝類內의 肝「지스도미」Metacercaria檢 索及2.3動物實驗(第1報)	蘇鎮卓	發表豫定
	十二指腸幼虫의各種土壤內에 서의生態調查	〃	〃
	各種基肥에對한十二指腸幼虫 의抵抗力實驗	〃	〃
	糞便內寄生虫卵의定量檢查에 關한研究(第1報) 農產中學生의糞便內寄生虫 卵定量檢查成績	李根泰	〃
	糞便內寄生虫卵의定量檢查에 關한研究(第2報) 寄生虫保有者外血型	李根泰	發表豫定
	於青島民의社會衛生學的調查 成績	尹德鎮 李栽熙 李根泰	〃
	沃溝郡開井面內의乳幼兒死因 及死亡率	尹德鎮 李栽熙	〃
1953	沃溝郡開井面內의母性調查成 績	〃	〃
	井邑郡禾湖地方學童의寄生虫 卵檢查成績	張在煥	〃
	糞線虫(Strongylides Stercora lis)에依한腹水患者1例	蘇鎮卓	研究所集談會

11 研究所沿革日誌

1935. 4. 舊熊本農場(全北沃溝郡開井面)事務室一遇에서開所[세브란스]醫專講師李永春本慈惠該療所長으로赴任 本支場四個所(開井, 地境, 大野, 禾湖)에 日割을定하고巡回診療開始 本農場小作人及其家族과職員에 對하야一切無料診療로함
8. 李所長日本京都大學으로 부서醫學博士學位受領
10. 農場構內에 診豆所建築落成
1937. 7. 李所長國際聯盟保健部主催東洋農村衛生會議에 個人資格으로 參席次蘭領印度 차바반등市에 出張 農事衛生觀察次台灣 英領보트네오馬來半島及香港을 巡察함(參個 3)
세부리스醫專教授金鳴善博士所長不在中觀察次赴任
1938. 6. 本日부서四個月에 直하야開井小學校兒童徵熱與結核及疾病과의 關係調查開始
1939. 3. 學校衛生을 爲하야 李所長은 慶次道知事에 對하여 建議中이든마 今年道豫算에 3名의 專任學校衛生원當醫師를 採用키로 本道에서豫算通過
6. 沃溝郡教育會總會에서 李所長 特別講演(學校衛生의 再檢討)
10. 地境診療所改築工事竣工
11. 本支場巡回診豆를廢止하고 開井 地境 禾湖에 각其診療所를 開設
左와如引分擔함
開井{李所長專任} 地境{鄭醫師專任} 禾湖{金醫師專任}
鄭醫師兼任 李所長兼任 李所長兼任
診療所擴充起旨一般小作人에게 配付
11. 開井小學校衛生室新築落成(建坪二〇坪 熊本農場寄贈)
11. 李所長總督府學務局長訪問 (學校衛生對策을 建議)
11. 禾湖診豆所增築落成
1940. 2. 前年の大凶作으로 因한 開井小學校缺食兒童 340名에 對하여 學父兄協力과 李所長指導下學校給食開始(3個月)
5. 開井小學校兒童九百余名에 對하여 六個月間每週 1回式結核免疫元(T A C.)注射를開始(診療所負擔)
1941. 6. 沃溝郡學校衛生會設立(全鮮最初)李所長同會長被選
1941. 8. 沃溝郡學校衛生講習會를 開井小學校에서 開催 各學校長 衛生主任敎員四十餘名出席李所長三日間專擔講義
12. 大野小學校衛生室新築落成(建坪二〇坪 熊本農場寄贈)
1942. 4. 日本陸軍各醫部主催로 17, 18, 19 歲朝鮮青少年体检實施에 對하여 沃溝郡下各面中開井面이 最優良으로 甲種合格 8割 大野面이 次位 4割 其

他面은 3割이하의成績을得하였음은多年間本診豆所의功積이라하여
沃溝郡守致賀次來所

6. 益山郡守趙春元(前沃溝郡守)氏로부터沃溝郡學校衛生에刺戟받아今年
度부터益山郡에專任校醫를設置되였다고 謝意와今后援助의舊信來
到
8. 禾湖小學校衛生室新築落成(建坪二〇坪, 熊本農場寄贈)
10. 李所長熊本農場主에게財團法人朝鮮農촌위생研究所 療養院設置案作
成提出 熊本農場四十年記念事業으로其實現을促望함
1944. 3. 1943年度開非面內死亡率에對하여集計觀察結果 面內七箇里中農場小
作人部落은其他部落에比하여 三分之一乃至二分之一의死亡率을得하
였다하여開非面長吳永泰來所致賀
1945. 3. 熊本農場主는財團法人社會事業機關設置를多年考慮中 禾湖支場管下
面1,500町步를基本財產으로學術研究 農產保健及農事改良等을目的
으로財團法人設立認可申請書를全北知事에게提出 所謂大東亞戰爭激
化로認可保留
4. 本診療所開設10週年及李所長在職10週年에當하니 吳開非面長을面民
을代表하여功績을致賀하며感謝狀을寄與함
8. 解放
株式會社熊本農場主熊本利平은日本降伏으로 農場經營不能케되었으
므로診豆所亦資金出處가斷絕되어니存續不可能아므로 現施設一切을十
年間共同經營者인李所長의 기蹭與望하이니適當한場所를擇하여營業自
營을勸함 李所長은本事業의社會性을強調 事業体의存續을確信하고
從前運營을決意全醫師職員과熟議한바全般的贊同 農場을직히여今後
事態에對遇키로함
1945. 10. 今春부터本支場小作人及一般有志層에 이른바 小作人及一般有志 6千余名을代表하여發起人
一同地境에會集 紀念品贈呈式을舉行함
10. 群山駐屯美軍政官「마우스」少佐來所 日人支配人立會下에農場浴革
現况本診療所狀況을聽取하니農촌保健事業은其社會性과朝鮮에있어서
의特殊使命이重大하므로 今後經營에對하여最善의援助를約束하고退
去
12. 舊熊本農場總代會開催 李所長으로부터診療所經營難에關하여經過를
說明한바全員本診豆事業은農村死活問題에關聯되므로萬難을排除하고
存續方策을講究하여달라고決議要請
12. 李所長上京新韓公社朴鎔敏委員長을訪問 新韓公社의後援으로本事業

經營維持量要請한바 本事業의趣旨에 대賛成援助하기를 言約함

1946. 1. 群山駐屯美軍政官「마우스」少佐로부터 本診豆所事業의擴充發展을 為하
 『中央廳軍政長官及保健厚生局長에게 推薦狀을 寄與함』
 1. 1946年度豫算編成表를 新韓公社에 提出
 6. 小作人貧困者는 無料 其他診療는 實費를 徵收하여 本事業維持量補助기
 로 함
6-9. 管下各郡部「丘北斗」侵入 창궐 全職員總動員 關係當局과 協力하여 防
 疫治病에 專力 함
1947. 2. 李所長朝鮮赤十字社創立委員으로 被選
 5. 李所長全北道醫師會代議員으로 被選 朝鮮醫學協會創立組織에 參加
 5. 李所長沃溝郡教育會主催 教員講習會席上에서 特別講演「學校衛生의
 新使命」
 8. 世醫大學生農村衛生實習班來所 沃溝郡聖山西面農家에서 十日間合宿農
 村實態調查
 8. 李所長新韓公社總裁代理「매튜스」中佐에게 新韓公社保健計劃書 提出
 1947年度提出豫算을 說明하고 今後의 積極援助量要望 李所長軍政廳
 保健厚生部長 美人「키-니」大佐訪問 本事業에 對於援助量要請한바 今后
 最善援助量約束하고 藥藥品及醫療器具配給을 각道立醫院同樣取扱
 豆尋全北道當局에 指示하였다고 言明
 9. 本診豆所主催 『開井青年』을 動員 所內에서 農民演藝會開催連日 大盛況
1948. 2. 李所長文教部主催女教員講習에 特別講演(於全州師範)『學校衛生의
 理論과 實際』
 3. 開井診豆所綜合病院昇格署에 따라 改築工事着手
 3. 地境診豆所改築工事着手
 3. 1947年度豫算에 以下記3個農村에 診豆所量設置함
 1. 海星農村 2. 東津農村 3. 東山農村
 3. 東津診豆所新築工事着手
 3. 新韓公社廢止 中央土地行政處豆改編
 7. 本診豆所開設始初부터 豫防醫學施設의必要性을 痛感하고 本機關施設
 을 計劃中 今般土地行政廳의 同意를 얻어 農村衛生研究所를 設置 各
 機關을 其管下에 設置하고 治豆와 豫防併進으로 本事業을 推進하기로 함
 7. 俞中央土地行政廳長 朴裡里廳長來所激勵
 8. 世醫大農村衛生調查團 外長徐正柱助教授 以下學生五名來所 十一日間
 沃溝郡玉山西面을 指定하여 全面民五千余名의 結染感染調查
 9. 地境診療所改築工事完成
 大野面民主催豆落成式舉行

11. 開井中央病院改築工事完成

開井 玉山 聖山三面民主催呈曹農林長官參席下落成式及研究所開所式舉行

1949. 1. 金堤郡青蝦面民의多率要望에依하여青蝦診療所開設
3. 木湖診療所는井邑 金堤 扶安三郡의境界線에所在한 바 同地方一帶에綜合病院이 없어住民의不便不安이甚함 鑑하여木湖診豆所를中央病院으로昇格 二間病室外來改築中이 든바今般落成 内科 小兒科 外科 眼科 耳鼻科疊設置함
萬頃江及東津江流域住民의肝「치스도마」感染調查及沃溝郡開井面民(6,300名)의結核感染率調查實施
1950. 1. 金堤郡廣活面村(移民村)住民의生活環境 結核感染率及寄生虫感染調查實施
6. 去秋旱災工事中이 든開井中央病院第2病棟及手術室 燈瓦2層109坪)及高等衛生技術員養成所(木造2層210坪)合同落成
7. 北韓共產軍侵入으로因하여李所長及木湖病院金院長의 3責任者는釜山地方으로避難키로하고 其外職員은各其地方에避難하였다가侵入後共產軍의嚴重監視下에 70日間 농民治療을繼續함
1951. 5. 木湖地方 4個邑面有志士催呈木湖病院金院長의 농村衛生奉仕十週年感謝表彰式을同病院內에서舉行
6. 宛州郡東山診療所는共產軍侵入으로施設의破坏又는紛失로因하여恢復後再開不可能으로不得已閉鎖함
6. 多年地方民의要請에依하여竹山(金堤郡竹山面)及八峰(益山郡八峰面)診療所疊 開設함
7. 去夏共產軍侵入으로開校를延期한開井高等衛生技術員養成所途開校 看護科第1學年生31名入學許可 7月2日開講
保健部長官으로부터7月9日付養成所設立認可증
9. 多年間宿望中이 든財團法人 농村衛生院을設立 농林 保健兩長官會議下에 농林部長官으로呈可 9月25日付設立認可증 이로써本法人은現存농村衛生研究事業의母體가 되
11. 本研究所開所3週年紀念日(11月6日)에 第1回學術集談會開催 同時に看護學生戴冠式及在職十週年以上職員(金木湖院長 崔木湖看護員長 李青蝦診療所長)의表彰式을舉行함
1951. 12. 沃溝郡臨陂面民의宿望에依하여臨陂診豆所를開設
1952. 2. 本研究所의唯一歯科진료所를沃溝郡全住民의便宜를考慮하여交通中心地인群山市內에開設 농민과아울러市民口腔衛生도 取扱키로함

- 3-5. 先天梅毒의 啓蒙衛生劇「黃昏」을 沃溝 裡里地 5에 40회公演觀衆에게 感銘을 주 本演劇은 研究員 李根泰創作主演으로 醫師 看護員及學生으로서 組織함
4. 4月7日 W.H.O記念日에 李所長의 多年農村衛生功獻을 讀賀하니 保健部長官으로 부서 表彰狀及記念「메달」을 授與함
7. 高等衛生技術員養成所看護助產科를 今後教育法高等技術學校令에 依據하야 設立케 되여 7月2日 付 文教部長官으로 부서 開并看護高等技術學校 設立을 認可함
7. 研究所試驗検査室及人講堂(木造150坪)及禾湖中央病院病室(木造92坪)增築工事開始
8. 高等衛生技術員養成所主催豆第1回學校衛生講習會를 開催國民學校教師及養護教師57名(1週間合宿)講習을 修了함
8. 全北道議會의 決議로 朴東根副議長外議員10余名本研究所에 派遣 多年農村衛生事業盡力에 對하여 感謝狀을 傳達함
8. WHO及保健部協調豆 1個月余에 亘하여 研究所職員總動員沃溝郡民全体及群山市學童에 對한結核豫防BCG接種運動을 展開
다음結果를 得함

結核反應實施 70,505名

結核反應判定 50,574名

結核反應陽性率

沃溝郡民 31.79%

群山學童 36.9%

BCG接種 29,453名

9. WHO韓國保健計劃使節團(團長Dr Macdonald)及UNKRA保健官一行 本日10日 研究所來所視察及討論
9. 未曾有의 長期降雨로 因하니 西海岸各郡一帶의 防潮堤多數崩壞로 難民續出에 遷하니 被害尤甚地區金堤郡廣活面所在廣活里로 所谓 醫師助手增派
9. 1952年度大流行의 夏季腦炎의 最初患者가 研究所開并病院小兒科에서 發見報告되자 渐次隣近郡部에서도 發生報告가 連續됨으로 保健部에서는 9月初防疫本部를 本研究所內에 設置本職員과 合力하야 防疫及病原追究에 專力한結果本地方에서는 大々的流行이 停止되고 死亡率도 3%以下의 低率을 確保하였다
9. 慎農林部長官 및 民議院議員一行25名은 金堤郡廣活防潮堤崩壞慘狀을 視察하야 來道機會에 本研究所를 調察 慎長官은 特히 職員及學生一同에게 農民保健努力의 成果에 對하야 致賀激勵

9. 解放后平野部無邊農村各地에서 진료所設置陳情이 無數하였으나 其中數個所에 만應答實現되었고 大部分이 放置狀態에 있는바 今春以來沃溝郡羅浦面 沃溝面에서 数三次에 걸쳐 代表를 派遣陳情이 有하야 研究所로 實現에 最大努力 할것을 約束함
 10. UNKRA에서 招請한 FAO韓國농業計劃使節團 團長Cray博士及 Hummel博士來所 視察后 豊村實情 暗示保健實情에 上하야 李所長으로부터 聽取
 11. 管下地境 진료所金경식所長의 在職10周年을 當하야 大野面民主催呈金醫師의 長期農村醫呈奉仕에 對한感謝表彰式을 소진료所內에서 盛大히 舉行
 12. UNKRA에서는 農村醫呈事業을 促進獎勵 카 為하야 本研究所中央試驗室에 細菌檢査施設一式을 寄贈
 13. 管下診療 研究及看護學校等各機關職員及 家族 및 看護學生을 總網羅하야 研友會를 結成 一般社會生活知識向上人格修練 및 乾淨 農村生活의 慰安을 目的으로 役員을 選出하야 月1回以上 名士及 會員의 特別講演 一般講座演藝音樂等을 題目으로 開催하기로 하여 實施開始
- 1953.
5. 管下開非中央病院兼外科長金永燮氏는 4.5兩月에 걸쳐 3例의 先天性肺動脈狹窄症患者手術에 韓國에서 最初로 成功
 5. 5日 어린이 날을 期하야 管下 各診療機關에서 優良兒審査會를 開催하야 各機關마다 優良兒 5名式에 對하야 研究所長으로부터 表彰狀及賞品(廣木半正式)을 授與 當日 機關別 審査兒數는 如下
- | 開井病院 | 507 | 海星診療所 | 198 |
|-------|-----|-------|--------|
| 禾湖 | 353 | 臨陂 | 170 |
| 竹山診療所 | 280 | 八峰 | 147 |
| 地境 | 258 | 廣活 | 50 |
| | | 計 | 1,963名 |
7. 李研究所長과 全州耶蘇病院 Craine院長의 合意에 依하야 今後不定期로 兩機關職員間에 知識技術의 交換向上 과 親睦을 目的하야 交換討論會를 開催하기로 하고 第1次를 全州耶蘇病院內에서 開會
 8. 研究所主催 第2回學校衛生講習會를 1週間開非看護高等技術學校內에서 開催 受講者 道內各國民學校教師 및 鮑山師範卒業班有志 93名 特別講師呈世醫大副學長趙東秀博士 全大學々 監李炳熙博士 및 研究所長李永春博士諸氏
 8. 昨今兩年學校衛生講習會開催를 契機로 各學校教師教育職員道學務課職員間에 論議되여 오는學校衛生研究會를 今次講習會를 期하야 道文教當局 各市郡教育監 各學校長 및 受講教師百余名 參席下에 正式으로 結成 會則通過役員을 選出함 會長에 李研究所長을 選出함

8. 研究所에서는 現代醫學에서 완전히 隔離된 黃海의 孤島인於青島住民의 生活及醫學的 調查를 目的으로 研究員 3名助手 3名으로 構成한 調査班을 派遣 約 2週間에亘하야 住民約千名에 對한 諸種調查를 實施하야 貴重한 各種資料를 收集
10. 研究所機關誌「農村衛生第2卷第1號」를 發行
11. 前年 7月에 着工한 研究室及 大講堂(禮拜室兼用)은 物價高로 因한豫算不足으로 一時 中斷되었던 바 農林部의 補助로 今秋遂完成 建坪 150坪의 人造石壁木造 2層建 所長으로 부터 本建物을 「双泉館」이라 命名 民族의 發展은 健康에 依하여 其源泉은 農民의 肉體와 精神의 健全에 依存되는 것 으로 이 러 한兩全의 目的을 為하야 使用権을 表示하는 것이다
11. 研究室及 大講堂과 同時に 着工한 玄湖病院病室(35名收容)도 一時 工事が 中斷되었으나 今夏 同時に 工事を 繼續하야 今月 完成
12. 今春 5月以來 本研究所 資糧을 為하야 中央圖書室에 圖書를 寄贈한 人士는 如下

Mr Manning (全州美國文化社) 醫學圖書 30卷

朱朝欽氏 (서울實業家) 修養圖書 80卷

Dr Urbaek (美空軍醫) 小說 47卷

Dr yriedmaun (美空軍醫) 醫學圖書 30卷

其他醫學雜誌 多數

120-28 대한예방의학회 창립50주년 기념

부록 2.

사 업 보 고 서

1971년 12월 4일

재단법인 거제 지역 사회개발 보건원

경남 거제군 하청면 실전리

I . 재단법인 거제 지역사회개발 보건원

본원은 경남 거제군 하청면 실전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배로 2시간반, 진해에서 1시간 10분, 그리고 마산에서는 2시간 거리에 있다. 거제도는 제주도 다음가는 큰 섬이며 인구는 약 110,000이다.

본원의 설립 목적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아울러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효과적이며 경제적으로 의료사업을 하려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2,500명에 의사 1명 끌이지만, 의사의 대부분은 대도시에 놀려 있으므로, 농어촌 지역은 의료의 혜택이 적은 것을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본원은 1969년 여름부터 이곳 하청면에 자리를 잡고 공사를 시작하여 외래진료실, 입원실, 공중보건실, 사택, 식당, 오락실 등을 짓고 1970년 12월 4일에 개원하여, 오늘로 1주년을 맞게 되었다.

본원의 특징은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을 결합 총체적인 의료를 주민들에게 베푸는데 있으며 공중보건사업에 역점을 두어 같은 든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점이다.

본원은 세계 교회협의회와 미국장로교 선교회에서 지원하고 있으

120-30 대한예방의학회 창립50주년 기념

며 이사는 아래와 같다.

직 위 성 명

이사장	임 의 선	세브란스병원 원장
이 사	오 기 형	연세대학교 교수
"	박 회 섭	협동교육연구원 원장
"	김 철 주	하청교회 목사
"	신 용 훈	선 하성면 면장
"	존 시블리	의사, 본원 원장
"	길매리 시언스	수녀, 세계 교회 협의회
감 사	존 브라운	목사, 호주 선교회
"	신 용 균	경상남도 교육위원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은 아래와 같다. (무순)

성 명

직 위

김 인 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자문위원회 의장
허 청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고 응 린	"
이 경 식	"
장 경 식	보건사회부 가족계획과장

성명 직위

노인봉	보건사회부 의정과장
임의선	세브란스 병원장
김영호	연세의대 교수
이리아스	WHO 고문관
구연철	이화 의대 교수

본원은 부산 복음병원,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및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관계를 엿어 협조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내한 결핵협회, 평화봉사단, 기타 여러 기관과 유대를 갖고 일하므로서, 보건분야에서 필요로하는 정보교환과 협조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현재 본원은 진료사업과 공중보건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결핵관리, 모자보건, 가족계획, 각종 예방접종, 보건교육, 학교보건, 환경위생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